

한 해가 정리되는 시점이다. 테러 여파로 지구촌의 2001년이 우울하게 저물고 있다. 올해 스페인 출판계는 미리 예상했듯 전반적으로 침체기였다는 게 중론이다. 올해도 스페인 어권 온라인 시장을 기웃거리던 필자의 피상적 시각 역시 거의 동일하다. 예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스페인 출판계는 올해 초부터 조용한 꿈틀거림이 있었다. 자국민의 독서 문화를 깨우치자는 범국민 독서 캠페인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부도, 독자도 아닌 출판계가 위치한다.

낮은 독서 지수가 독서 운동에 눈 돌리게 해

사실 스페인은 최근 몇 년 동안 미묘한 딜레마, 즉 출판 강국이라는 미명과 자국민 독서 인구 지수가 유럽에서 최하위라는 오명 앞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출판인들은 당면한 모순을 타개하고자 정부 차원의 강력한 독서 정책과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자신들 역시 계속되는 출판 시장 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해왔다.

출판인들을 독서 운동에 눈 돌리게 한 계기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독서 인구 수치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먼저 14세 이상의 자국민 가운데 책을 읽는 사람이 58%,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42%, 책을 읽는 사람 가운데서도 22%는 간혹 읽거나 거의 읽지 않는다고 조사됐다.

한편 통계청의 독서 지수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독서 인구를 성별로 분류하면 여성이 우위를 점하고 그들 가운데 40%는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과 연령별로 16세에서 24세가 주요 독서층이라는 통계에서 보듯 전망이 밝은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관과 전망이 공존하는 통계는 올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42%에서 47%로 증가했다는 잠정적 통계에 맞물려 그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줬고 중국에는 출판인들을 중심으로 독서 캠페인이라는 카드를 내밀도록 만들었다.

지난 11월, 스페인 출판조합은 수도 마드리

독서지도 서비스로 출판시장 활성화 꾀한다

출판계가 범국민 독서 캠페인 이끌어

정창 | 번역가



스페인 출판계는 지금 독서 시장의 침체를 벗어나려는 장기적인 대안으로 독서 진흥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마드리드 '독서 페스티벌'의 참석자들.

드에서 조출한 행사를 열고 진지한 독서 진흥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문화교육부 후원 아래 '독서 페스티벌'에 참석한 출판인, 서적상, 유통업자, 작가들은 자국민들의 독서 지수가 낮은 요인을 독서 교육의 실패로 인식하고 그들의 다양한 독서 진흥책이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질 과제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독서 취향 진단하고 심화시키는 독서 지도 서비스

그날 행사에서 출판조합이 내놓은 실질적 대안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이미 시작된 정부의 독서 진흥 캠페인과 병행될 '독서 지도 서비스(SOL)'다. 출판조합의 직접적인 지원 아래 인터넷과 전화 등을 매개체로 활용하게 될 SOL은 자신의 독서 취향을 진단하고 확대 심화시키길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우선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차츰 성인으로 확대시킨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출판조합은 SOL의 활동을 통해 독자들의 독서 취향과 습관 혹은 도서 구입 정보를 면밀히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표준 지표를 작성해 그것을 4개월에 한번씩 발표할 예정이다.

출판인들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책을 간혹 읽거나 전혀 읽지 않는 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서를 저해하는 외부적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 궁극적으로 출판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지금 스페인 출판인들은 문화교육부와 함께 독서 시장의 침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기적 대안으로 독서 진흥 캠페인이라는, 어쩌면 가장 전통적인 방식을 시험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처럼 주변국 영국의 독서 지수인 80% 이상으로 자국민의 독서 지수를 끌어올릴지는 지켜볼 일이다. 스페인 독서계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에게 올바른 독서 지도와 훈련은, "독서 행위는 일종의 사랑 행위이며, 오로지 독서를 경험한 자가 그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앙헬레스 곤살레스의 명쾌한 정의에서 보듯, 빠를수록 좋으며 한 국가의 지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천적 방법론임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